



80묶음 15분만에 동나... 수백명 발만 동동

도내 하나로마트 44곳서 공적 마스크 판매 시작
오전 8시부터 대기... 구매 못한 시민 항의 빗발
약국에서도 판매키로 했지만 아직 시기 등 미정

제주지역 읍면 우체국에 이어 도내 농협하나로마트도 2일 오후 2시부터 일제히 공적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턱없이 모자란 물량 탓에 수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는 구경도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이날 낮 12시 제주시 건입동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 본점에는 마스크를 사기 위한 시민들의 줄이 수백m 가량 길게 늘어선 있었다. 마스크 매대가 매장 밖 주차장 한켠에 임시로 마련돼 주위를 피할 방법이 없었지만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줄은 시간이 갈수록 더 길어졌다.

마트 측은 대기하는 시민들이 250명 가량을 넘어서자 이날 낮 12시45분쯤부터 “오늘은 총 80묶음(3매 들어) 밖에 팔지 않으니 대기 순번이 80번을 넘어서는 고객분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돌아가시라”고 돌려 세우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시민들은 “3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돌아가라니 말이 되느냐” “내일 나눠줄 번호표를 미리 배부해 달라”, “오후 2시에 판매하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마스크를 구매하란 말이나”고 하소연

했다. 마트 직원들은 쏟아지는 항의에 진땀을 흘리며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우여곡절 끝에 줄어든 마스크 구매 줄은 판매 시작 40분을 남기고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갔다. 마트 직원들은 체념한 채 긴 한숨만 내쉴뿐이었다.

첫 공적 마스크는 오전 8시부터 기다린 한 70대 시민에게 돌아갔다. 한채림(70·제주시 삼도1동)씨는 “점심도 거르고 장장 6시간을 기다렸

다”면서 “줄기는 하지만 이렇게라도 마스크를 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시민들은 허탕을 쳤다. 마스크 80묶음(240매)이 동나기까지는 채 15분이 걸리지 않았다.

다른 마트를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이날 44곳 하나로마트에서 1인당 3매 한정 구매 조건으로 9120매를 풀었지만 판매 개시 침수분만에 모두 바닥을 드러냈다.

농협 측은 3일에는 판매처를 4곳, 물량을 3104매 각각 늘려 도내 하나로마트 48곳에서 1만2224매를 내놓을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수요에는 턱없이 못 모자라 마스크 품귀 현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판매하는 마스크는 1묶음 3매(6150원, 개

당 2050원)와 1묶음 5매(4305원, 개당 870원) 등 2개 종류다.

고모(49·제주시 일도2동)씨는 “정부가 너무 늦게 마스크를 시장에 풀다보니 이 사태가 나는 것”이라며 “마스크를 살 방법이 없다. 생업을 포기하고 마스크를 찾으러 돌아다녀야 한다는 말이나”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도내 294곳 약국에도 공적마스크를 풀겠다고 했지만 판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제주도약사회 관계자는 “도매상 2곳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 받기로 했는데 아직 물량이 도착하지 않아 판매를 못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내일 오후 늦게나 모레부터 판매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판매 시점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공적 마스크 구입을 희망하는 많은 시민들이 2일 오전부터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를 찾아 길게 줄을 서 있다.

강희민기자

제주해상서 표류어선 구조

제주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어선이 남해어업관리단에 의해 구조됐다.

2일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9시50분쯤 제주 서귀포 남방 약 357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함림선적 H호(22t·승선원 6명)가 기관 고장으로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신고가 남해어업관리단에 접수됐다.

이에 남해어업관리단은 한·일 중간수역에서 순찰 중이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8호를 현장으로 급파, 지난 1일 오후 1시30분쯤 H호를 제주시 한림항으로 예인했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원거리 조업어선은 해상사고 방지를 위해 출항 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석기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 차단을”

현재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3명... 접촉자 자가격리
확산지역 방문 자제·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응 절실

제주지역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을 배려하는 선진 시민의식 함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이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들인 경우 스스로 코로나19 검사에 참여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명으로, 모두 대구지역을 방문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제주에 내려온 후 지인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과 접촉했던 134명은 자가격리된 상태이다. 코로나19 제주 3번(48·여)과 접촉한 22명은 이날부터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제주 1·2번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중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잠복기를 감안하면 아직 안심하기는 이

른 상황이다.

제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대구·경북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이곳에 갔다 온 사람들은 증세가 보이면 바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검사를 받아 보는게 좋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불행히 3명이 발생했지만 그나마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환자로 보인다”면서 “이번 추가 지역사회 전파 여부의 중요한 한 주이다. 도민 모두 손 씻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 자제 및 접촉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보이스피싱 조직에 불법 송금 중국인 실형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한화를 불법 환전해 송금한 중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자기 방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28)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15일부터 그해 3월 4일까지 총 차례에 걸쳐 한화 1억6450만원을 허가 없이 환전해 중국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환전해 송금한 돈 중 5000만원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계좌로 들어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환치기를 제안한 인물과의 관계 등에 비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법정의 가담 정도도 중하고 죄질도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서귀포시 불법 옥외광고물과의 전쟁

2차 적발뎀 과태료 부과 조치

서귀포시가 차량 통행과 도로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주말·휴일 구분없이 불법광고물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명예감시원 활동 등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서귀포지역에서는 가로수 등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가로수 등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차량 운행과

도로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버스승차대 불법 벽보·전단, 불법 대부명함 등을 중점 정비할 예정이다.

또 각 읍·면·동에서도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 도심지, 주요 관광지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차 적발시 즉시 광고물 철거 후 계고, 2차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후 불법 광고물 설치 행위 적발시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자가격리자 관리전담운영체계 강화

장보기 등 서비스... 절물휴양림 시설물 5곳 임시폐쇄

제주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중밀집시설 방역 및 자가격리자 관리전담 운영체계 등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휴관기간이 연장되고 각급학교의 개학이 늦춰짐에 따라 청소년들의 PC방 등 게임장 이용이 늘어날 것에 대비 관련 업소에 대한 집중 예방지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PC방 213개소, 게임장 51개소 등 264개소에 대해 방역여부와 손소독제 비치 등 점검이 이뤄진다.

또한 절물자연휴양림 방문자센터 등 절물자연생태소 내 시설물 5개소도 임시폐쇄 조치됐다. 시설내 숙박 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주2회 집중 방역 및 매일 자체 소독작업도 이뤄진다.

건설현장에 대한 예방지도도 강화된다. 다른 지방 건설현장에서 확진

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 관내 건설현장 및 대형건축공사장 등 73곳에 대한 안전수칙 당부와 함께 해외방문 외국인 근로자 등 현장 위생관리에 철자를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이와함께 자가격리자의 외부 출입 제한으로 인한 생활 불편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반 운영체계를 강화했다.

자가격리자 및 동거인이 외출할 수 없는 불편한 점을 감안 격리기간 필요한 식품류, 위생용품 등을 집 앞까지 배달하는 등 지난달 28일부터 ‘장보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장보기 서비스’는 전화 모니터링 시에 격리자가 필요한 물품을 구매 요청하면 전담직원이 물품을 구매, 문 앞에 물건을 두고 전화를 하면 격리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담직원이 우선 구매 후 정산하고 있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1포(100~500평) 사용

잡초의 경감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높은 저장성

페르카*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인효과

뿌리혹병의 경감

최급 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염면 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역제제, 광합성지원제품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아일랜드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시청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